

국가·이념의 벽을 넘다, 60년대생 미술가들

함경아 개인전 '유령의 발자국들'

북한에 자수 밑그림 보내 의뢰
돌이 1800시간 걸려 2m짜리로

'시징(西京)의 세계'

김홍석, 첸샤오시웅, 오자와 쓰요시
빨강·노랑·초록 피망 메달 등 풍자



함경아

서울서 보는 북한 장인들 한땀 한땀 자수



어느 힘들었던 날 함경아는 북으로 보낼 자수 밑그림에 '당신도 외로운가요(Are you lonely too?)'라고 적어 보냈다. 보일 듯 말 듯, 자수 회화 속에 이 문장이 숨어 있다. '카무플라주 속 SMS 시리즈'(202×199cm)다. 오른쪽 사진은 시징맨의 퍼포먼스 '시징 올림픽'의 한 장면. 김홍석, 첸샤오시웅, 오자와 쓰요시 세 사람이 피망으로 만든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사진 국제갤러리·국립현대미술관]

올림픽 패권경쟁 비튼 한·중·일 작가 3인



예술가에게 국적은, 또 국가란 무엇일까. 경계를 넘나드는 게 일인 이들은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국경을 어떻게 넘나들까. 북한으로 자수 밑그림을 보내 그곳 장인들에게 한 땀 한 땀 제작하게 해 현대미술전을 여는 함경아(49)는 우리에게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존재를 자각하게 한다. 김홍석(51), 첸샤오시웅(53), 오자와 쓰요시(50), 한·중·일 작가 3인은 '시징맨(西京人)'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 '시징'이라는 가상의 국가 속에서 국가주의에 대한 뼈 있는 농담을 던진다.

함경아는 2008년 중국을 통해 사진을 북으로 보내 자수 제작을 의뢰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있을 무렵, 거짓말처럼 '답장'이 왔다. 2명 혹은 4명의 자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떠서 보낸 자수 회화다. 북한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바느질 할 줄 아는 많은 여성들이 소규모 자수 공방에서 일하고 있다. 원본 사진은 더러 잘린 채 돌아왔다. 원본보다 원색의 대조가 훨씬 강해지기도 했다. 작가는 '검열을 피해 작업하느라 그랬나보다' '어두운 곳에서 수를 놓는 것은 아닌지' 짐작했다. 남한에 홍수가 나면 북한의 피해 역시 막심해 작업이 지연됐다. 어느 힘들었던 날 작가는 저쪽의 낯모르는 이들에게 '당신도 외로우세요(Are you lonely too?)'라는 영어 문장을 정교하게 감춘 밑그림을 보냈다. 북에서 두 사람이 1800시간(75일) 걸려 수를 놓아 보내 왔다. 2m 넘는 자수 회화를 보고 있으면 큰 그림 속에 바늘땀으로만 남은 저들의 존재가 새삼 느껴진다.

28일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만난 작가는 "한 번의 클릭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시대에, 그와 가장 반대되는 일을 했다. 외국 작가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겠지만, 한국인이어서 갈 수 없다는 제약을 돌파해야 했다. 돌고 돌아, 우회와 은유를 거친 예술"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계원예술대 교수는 "추상이 없고, 개인의 감정 표현이 억제된 그곳에서 작가가 보낸 밑그림을 들여다보며 오랜 시간 작업한 장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밝고 아름답고 경쾌한 느낌의 자수 회화에 숨은 함의가 예사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시징의 세계'는 웃다가 뜨끔해지는 전시다. 50대 남자 셋이 티스폰을 이용해 서로의 소

주잔에 얼음덩어리를 넣고(아이스하키), 동그란 빵으로 만든 헤드폰을 쓰고 과녁을 향해 토마토를 던진다(사격). 심판은 작가의 자녀들. 시상대에 오르면 빨강·노랑·초록 피망 목에 건다. 이 장난 같은 게임이 벌어지는 곳은 가상의 나라 '시징'(西京의 중국어 발음)이다. 스포츠 정신은 실종되고, 각국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 된 올림픽을 비튼 작업이다. 1960년대생으로 90년대 탈식민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 작가로 활동했던 이들은 2006년 의기투합, 시징이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김홍석은 "새로운 개념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려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나. 지엽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작

품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강수미 교수는 "60년대에 태어나 90년대부터 활동한 함경아·시징맨 세대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국가 정체성 등을 의식하면서도 민족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전시 정보

▶함경아 개인전 '유령의 발자국들(Phantom Footsteps)'=다음 달 4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3관. 무료. 02-735-8449.

▶시징(西京)의 세계=8월 2일까지. 서울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관 통합권 4000원. 02-3701-9500.